

# 가부장제 민족주의의 분열증과 여성 생애사 쓰기의 가능성

이지은

서울대학교 강사

목차

- 1 민족국가의 부침과 ‘혼혈’의 인종화
- 2 혼혈 가족(=국민)의 탄생과 국민의 위계화
- 3 ‘혼혈 민족주의’의 불안과 분열
- 4 어머니의 자기 생애사 쓰기의 가능성
- 5 ‘무지한 혼혈’ 주체와 순혈 이데올로기의 균열

이 글은 조정래의 「황토」를 통해 가부장제 민족주의가 비-순혈적 존재를 배제하는 양상을 분석하고, 여성의 생애사 쓰기에 잠재된 힘을 확인한다. 비-순혈적 존재는 일제말기에는 ‘내선혼혈인’으로, 한국전쟁 후에는 ‘기지촌 혼혈인’ 등으로 시대에 따라 달리 대표/표상(represent)되었다. 본고는 해방 후 ‘혼혈’ 개념이 인종화됨에 따라 한반도에서 살아 온 내선혼혈인의 존재가 삭제되었음을 지적하고, 이 또한 배제의 방식이라 보았다. 「황토」의 장남 태순이 ‘식별되지 않는’ ‘내선혼혈인’으로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순혈주의를 주장하고 있다면, ‘기지촌 혼혈인’인 동익은 ‘식별되는’ ‘인종적 표식’을 지니고 있음으로 인하여 폭력의 대상이 된다. 이때 태순의 태도는 이민족과 섞였던 자기 역사를 망각하고 끊임 없이 타자를 배척하는 민족국가의 순혈주의 메커니즘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태순은 ‘순혈’ 민족이라는 범주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영역’이 아니라 ‘비식별 영역’일 뿐임을 보여주는 존재이다. 이때 민족국가가 망각한 ‘불순한’ 역사는 어머니 점례의 생애사 쓰기로 폭로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 점례의 글쓰기는 완성되지 못했고, 여성 생애사 쓰기의 가능성은 도래할 것으로 남아 있다.

국문핵심어: 혼혈, 혼종, 순혈주의, 국민, 민족, 국민 형성, 가부장제 민족주의, 여성 생애사 쓰기

## 1 민족국가의 부침과 ‘혼혈’의 인종화

한국어에서 ‘혼혈(混血)’이라는 말은 다른 인종의 혈통이 섞이는 것과 동일 인종 내의 다른 종족의 혈통이 섞이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sup>1</sup> 그러나 역사적 맥락에 따라 혼혈은 달리 대표/표상(represent)되었다. 개항 이후부터 식민지 시기까지 혼

---

1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혼혈(混血)’의 사전적 의미는 “1. 서로 인종이 다른 혈통이 섞임. 또는 그 혈통. 2. 혈통이 다른 종족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흔히 인종(race)은 피부 색 등과 같은 생물학적 기준에 의해 분류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종족(ethnicity)은 문화적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되지만, 둘은 명료하게 구분되지 않는 모호한 개념이다.

혈은 두 가지 의미로 두루 사용되었으나, 일제 말기 조선의 혼혈 문제는 주로 ‘식민지배자 일본인-피식민자 조선인’ 사이의 결혼과 재생산에 관한 것이었다. 한편, 해방 이후 ‘미군정-한국전쟁-미군의 장기주둔과 기지촌 형성’이라는 일련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혼혈인은 주로 외국 군인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이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sup>2</sup> 1960년대 생산된 의학적식체계 또한 혼혈인을 이와 같이 암묵적 혹은 명시적으로 전제하였고, ‘한국인(의 몸)’을 규정하기 위한 타자로서 혼혈인, 곧 ‘한국인이 아닌 몸’에 관한 지식을 생산하였다.<sup>3</sup> 혼혈은 한국 전쟁 이후 인종화된 개념으로 통용되었으며, ‘단일 민족 국가’라는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었다.<sup>4</sup>

소설에 나타난 혼혈인 재현도 역사적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 염상섭의 「남창서」(1927), 「해방의 아들」(최초 게재는 「첫걸음」, 1946), 장혁주의 「우수인생」(1937), 김사랑의 「빛 속으로」(1939) 등은 일본과 조선 사이에 끼인 존재로서 내선혼혈인의 정체성 혼란을 그리고 있다.<sup>5</sup>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혼혈인의 재현은 급격한 단절을 보인다. 김광주의 「혼혈아」(1958), 하근찬의 「왕릉과 주

2 한국 전쟁부터 이러한 개념이 형성되었다. 1953년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혼혈아실태조사”를 “흑백황(黑白黃)三色으로분류하여 조사할것”이라 예고한다. 「混血兒實態調査 黑白黃三色으로」, 『동아일보』, 1953.7.29. 또, 서울의 “혼혈아실태”에 관한 기사에서도 혼혈인은 백계와 흑계로 분류되어 있다. 이 기사는 ““유엔”군과 한국여성(女性)과의 정식결혼 혹은 일시적인 동거생활로인하여 많은 혼혈아(混血兒)가 출생되고있”다고 지적한다. 「白契60黑系32名」, 『경향신문』, 1953.4.23. “혼혈아”는 외국군인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출생한 이들로 암묵적으로 전제되고 있으며, 동시에 인종화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

3 박정형, 「인종적 ‘타자’로서의 혼혈인 만들기」,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52-54쪽, 61쪽.

4 이 글에서 다루지는 못하지만 1990년대 이후 ‘혼혈인 문제’는 ‘다문화주의’로 대표된다. 개념적으로 다문화주의란,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평등을 추구하자는 원리”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다문화’라는 수식어는 특정 인종과 젠더에 결부된 의미로 사용되면서, ‘2등 한국인’이라는 배제적 포섭의 의미를 지닌다. 염운옥, 『낙인찍힌 몸』, 돌베개, 2019, 366-375쪽 참조.

5 열거된 텍스트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는 이들은 모두 ‘아들’이다. 혼혈인을 재현한 서사는 ‘순혈 민족’의 허구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성별의 정치학과 긴밀히 연동하고 있다. 이에 관한 연구로는 이해령, 「인종과 젠더, 그리고 민족 동일성의 역학」, 『현대소설연구』 제1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송명진, 「혼혈의 서사화 양상에 대한 사적 고찰」, 『한국언어문화학』 제7권 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참조.

둔군」(1963), 백인빈의 「블랙쥬」(1964), 조정래의 「미운 오리새끼」(1978), 문순태의 「문신의 땅」 1~4(1988) 등 한국전쟁 이후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혼혈인은 주로 외국 군인과 한국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이들로 재현된다. 후자의 텍스트군에서 혼혈인은 인종적인 표식을 지니고 있는 몸으로 재현되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차별과 멸시에 노출되어 고통을 겪는다. 또, 혼혈인의 몸은 그들의 어머니를 ‘양공주’로 낙인찍는 것으로 기능한다. 이처럼 ‘혼혈(인)’의 주된 의미나 재현 방식에는 미군정 및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한 단절이 있고, 이에 대한 연구 또한 유사한 흐름을 띠고 있다. 역사적인 연속선상에서 혼혈이라는 하나의 단어 속에 중첩된 의미를 고찰한 연구는 드물다.

이 글은 “點禮라는 한 女人의 파란만장한 一生을 통해 韓國現代史를 조명”<sup>6</sup>한 조정래의 「黃土」(1974)를 대상으로 하여, 가부장제 민족주의의 모순을 분석하고자 한다. 「황토」는 조선인 여성 김점례의 수난의 일대기로, 그녀는 일제식민지, 해방,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일본인 주재소 주임, 공산주의자 한국 청년, 한국전쟁에 파병된 미군 대위의 자식들을 낳아 아버지 없이 키운다. 소설은 각 시대별 지배 권력을 남성 인물로 표상하여, 이들로부터 버림받거나 성을 유린당하는 점례의 고통을 그리고 있다. 다소 도식적인 서사 구조는 점례의 삶을 민족의 수난사로 읽히게 한다. 작가 스스로 밝히고 있듯,<sup>7</sup> 외세로부터 짓밟힌 척박한 한반도의 땅 ‘황토’는 곧 점례의 삶인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황토(땅)’의 생산성은 아버지가 다른 자식들을 키워낸 점례의 모성을 상징하면서 척박한 현실을 이겨낼 가능성으로 남겨진다. 점례는 “이땅의 현대사가 물고 온 온갖 고통을 한몸으로 받아내면서 끝내 쓰러지지 않고 그 품에서 새 생명을 키워 내는”<sup>8</sup> 인물로 이해되어 왔다.

6 조정래의 「황토」의 영화화 소식을 전하고 있는 기사의 일부로, 기사는 이 대목이 원작자의 말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趙延來「黃土」映畫化」, 『조선일보』, 1975.10.12.

7 1989년 동아출판사에서 출간된 『黃土』에는 다음과 같은 작가노트가 부록으로 실려 있다. “황토는 우리 반도땅의 실제 색깔이면서, 상징적 이름이다. 땅은 또한 사람에게 있어서 여자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 두 가지의 상징을 겹쳐놓은 것이 이 작품이다. 그러므로 주인공 점례의 수난과 삶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는 자명해지리라.” 조정래, 「작가노트」, 『黃土』, 동아, 1989, 371쪽.

8 李東夏, 「우람한 중합을 향한 전진」, 『黃土』, 동아, 1989, 376쪽.

「황토」는 1974년 현대문학사 단행본에 실려 처음 발표된 이래, 70~80년대 단편집, 선집 등

그러나 점례의 삶에서 민족의 불굴의 생명력, 혹은 역사 극복의 희망을 읽어내는 것은 점례가 ‘양공주’로 살아남은 시간을 삭제하고 어머니로서 희생한 측면만을 선택적으로 강조한 결과라 할 수 있다.<sup>9</sup> 더하여 이러한 독해는 민족사를 여성 수난사로 재현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간과한다. 이민족으로부터의 침략을 자민족 여성의 정조 상실과 수난으로 재현하는 여성수난사는 민족주의 서사를 위해 여성성(여성적인 것)을 동원한다. 이때 “‘여성적인 것’은 상실과 훼손의 의미로 고착되며 이러한 고착은 동시에 순수와 무구성에 대한 집요한 강박 관념을 낳”<sup>10</sup>게 된다. 가령, “한국 남성들이 저질러놓은 왜곡된 역사와 현실의 공포를 점례가 고스란히 뒷감당한 꼴”<sup>11</sup>이라는 해석은 제국과 민족으로부터 이중으로 억압받는 여성의 삶의 조건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여성수난사가 여성성(혹은 여성적인 것)을 동원하고 의미화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처럼 「황토」는 가부장제적 상상력에 토대를 두고 있는 텍스트이며, 오랫동안 이러한 토대를 승인한 위에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황토」의 서사가 문제적인 것은 가족 내부의 갈등을 전면화하여 통합되지 않는 민족주의의 자기모순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기존 연구는 미군 대위와 점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에 주목하여 순혈 이데올로기 속에서 타자화되는 혼혈인의 삶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sup>12</sup> 그러나 일본인과 점례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족의 순혈 남성을 자처하는 혼혈인 장남이 겉으로 드러나는 인종적 표식을 들먹이며 혼혈인 막내를 학대하는 장면은 순혈 민족주의의 모순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이다. 이에 대한 해석이 누락되어

---

에 반복적으로 실렸다. 여기에 실린 해설들 또한 유사한 해석을 보여준다. 具仲書, 「주인 바귀는 時代의 悲劇 추적」, 『韓國文學大全集』 31, 太極出版社, 1979; 千二斗, 「執念의 文學」, 『趙廷來』, 汎韓出版社, 1984.

- 9 변화영, 「분단극복문학에 나타난 혼혈인 연구—조정래의 「황토」와 「미운 오리 새끼」를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제18집 3호,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 10 권명아, 「여성 수난사 이야기, 민족국가 만들기와 여성성의 동원」, 『여성문학연구』 제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112쪽.
- 11 임규찬, 「역사의 비극과 삶의 뒤틀림—중편 〈비탈진 음지〉·〈황토〉의 세계」, 『비탈진 음지』, 해냄, 1999, 325쪽.
- 12 최강민, 「단일민족의 신화와 혼혈인」, 『어문론집』 제35집, 중앙어문학회, 2006.

은 것은 해방 이후 혼혈의 의미가 인종화된 것과 관계 깊을 것이다.

(신)식민의 역사의 결과로 혼혈을 인식해 온 한국 사회에서 내선혼혈인과 전쟁혼혈인/기지촌 혼혈인은 각각 다른 소외의 조건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이를 달리 살펴볼 인식들이 부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전자의 경우를 ‘식별되지 않는 혼혈인’으로, 후자의 경우를 ‘식별되는 혼혈인’으로 명명하고자 한다.<sup>13</sup> 기실 ‘혼혈’은 ‘순혈’이라는 허구를 전제한 용어이며, 이 허

---

13 필자는 한국사회에서 ‘혼혈’의 개념이 인종화되었고, 이에 따라 인종적 표식으로 인해 ‘식별되는 혼혈인’과 내선혼혈인처럼 ‘식별되지 않는 혼혈인’이 각기 다른 소외에 처해 있다고 본다. 물론 ‘인종’이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은 아니다. 가령, 미국사회에서는 인종집단 내부—가령, 한국계 미국인과 베트남계 미국인—의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혈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반면, 2003년 필벽재단에서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동남아시아인 또는 백인·흑인인 경우 혼혈인의 범주에 포함하지만, 한국인과 외모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일본인·중국인·몽골인을 부모 중 한 사람으로 둔 경우는 혼혈인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설동훈, 「혼혈인의 사회학: 한국인의 위계적 민족성」, 『人文研究』 제52권,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128, 130쪽. 이러한 ‘상대적’ 규정은 인종 개념이 자의적이라는 점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종’ 혹은 ‘혼혈’이라는 개념이 해당 사회의 다수의 시선에서 구분된 것임을 보여주기도 한다. 사실 ‘식별되는/되지 않는’ 차이는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배제의 기준으로 작동한다. 단적으로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을 제2국민역 편입 대상으로 배제하도록 명시했다. 해당 부분은 “혼혈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2국민역 처분을 하고 있어 인권차별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되었으나, “혼혈인의 제2국민역 처분사유중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인’인 경우를 삭제하고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만 제2국민역에 편입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관상 식별’이라는 기준은 남겨 두었다. 「병역법 시행령-개정·개정사유」, <대통령령 제18891호, 2005. 6. 30., 일부개정> 따라서 이 글은 ‘식별되는/되지 않는’ 조건에 따라 다르게 경험되는 혼혈인의 취약성을 살피기 위해 전략적으로 이러한 명명을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식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남/드러나지 않음’이 사실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렸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때 ‘보는 사람’의 자리가 곧 권력의 자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최근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이나 ‘다문화인’에 대한 차별 등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순혈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식별되지 않지만 동일하지 않은’ ‘혼혈인’의 존재를 적극 개념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식별’이라는 말은 ‘혼혈’이라는 범주가 ‘보는 자(권력)’에 의해 형성됨을 드러내며, 식별 불가능한 혼혈인의 존재는 동질성에 대한 믿음 자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내선혼혈인’, ‘기지촌 혼혈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식별’의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경우에는 ‘식별되는/되지 않는 혼혈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구를 기반으로 특정 집단을 구분해내면서 타자화를 수반한다. 그럼에도 이를 구분하여 명명하려는 것은 이들이 처한 억압적 조건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나아가 「황토」의 장남처럼 자신을 ‘순혈’로 정체화하는 ‘식별되지 않는 혼혈인’의 존재는 민족이라는 범주가 순혈의 영역이 아니라 ‘비식별 영역’일 뿐임을 드러내 주기 때문이다. 이 글은 「황토」를 중심으로 한국전쟁 후 혼혈인을 인종화, 타자화함으로써 순수 혈통의 민족을 상상했던 가부장제 민족주의의 모순적인 내부를 분석해 보이고자 한다.

## 2 혼혈 가족(=국민)의 탄생과 국민의 위계화

「황토」는 미발표 신작으로 동명의 단편집 『황토』(현대문학사, 1974)에 실려 출간되었다.<sup>14</sup> 소설은 1927년 즈음 출생하여 해방, 한국전쟁을 거쳐 삼 남매의 어머니가 된 김점례의 삶을 그리고 있다. 총 5장의 구성 중 1장과 5장은 삼 남매가 모두 장성하고 점례가 오십 세를 바라보는 현재의 시점에서 서술되고, 2~4장은 과거 점례의 삶이 시간순으로 제시된다. 2장은 식민지 시기, 3장은 해방~한국전쟁, 4장은 한국전쟁 이후라는 역사적 시간을 배경으로 한다. 점례는 각 시기마다 한반도의 지배적 권력으로 상징되는 남성 인물—일본인 주재소 주임 야마다, 공산주의자 청년 박항구, 미군 대위 프란더스—의 아이를 낳는다. 이 중 박항구와의 관계만이 정식적인 혼인이고, 일본인 야마다와 미군 프란더스와의 관계는 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한반도의 지배적 세력으로 상징되는 남자들은 세력의 몰락과 함께 점례와 아이를 버리고 떠난다. 이때 아이들은 아버지가 다른 탓에 모두 다른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장남 태순(=야마다 마사오)과 막내아들 동익(=로버트)은 각각 일본인 순사와 미군 장교 사이에서 낳은 혼혈인이고, 둘째 딸 세연만이 한국인 청년 박항구와의 혼인을 통해 얻은 아이이다. 점례는 해방 후 정식 혼인을 할 때 태순을 낳았다는 사실을 숨겼고, 남편 박항구와 미군 장교 프란더스가 모두 떠난 후에 큰

14 이 글은 1974년 현대문학사에서 출간된 최초 발표본을 저본으로 삼는다. 이하 서지를 생략하고, 본문에 페이지만 괄호로 표시한다.

아들 태순을 친정에서 데려와 함께 살았다. 점례는 태순이 혼혈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친정에서 떨어진 곳에 살았기 때문에 태순조차 자신이 혼혈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점례는 아버지가 각각 다른 아이들을 월북한 남편 박항구의 자식으로 입적시켜 하나의 가족으로 만든다.

점례의 가족이 탄생하는 과정은 해방과 전쟁을 거치며 진행된 건국 및 재건의 과정과 매우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애초 점례와 관계 맺은 남성들이 한반도 지배 권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소설에서 점례의 자식들은 지배 권력이 낳은 역사적 산물이자 그들이 도망가면서 남긴 존재라는 의미를 지닌다. 아이들이 태어난 시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태순은 1944년 8월, 둘째 세연은 1947년 5월, 셋째 동익은 1951년 9월이다. 각각 일제 말기, 미군정, 한국전쟁 중에 태어난 이들은 건국과 재건이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탄생한다. 그런데 이민족의 부계 혈통을 지닌 점례의 아들들은 ‘단일 민족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강렬한 욕망이 배제하고자 했던 대상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국민’이 부계 혈통으로 상상되는 ‘민족’과는 다른 법적 개념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동시에 1948년 처음 제정된 국적법은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sup>15</sup>를 첫 번째 국민의 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부계 혈통의 계승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실 법적 개념으로서 국민이 구성되는 과정은 가(家)의 단위로 부계계승주의를 구현한 기존의 호적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가령, 해방 직후 국적법이 마련되지 않았던 미군정 시기, 적산처리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구별의 어려움 때문에 애를 먹었다. 이때 군정청이 사용한 주된 방법이 바로 호적이었다.<sup>16</sup> 또, 「국적법」의 모태가 된 1948년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의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이하 임시조례)에서도 조선인에 대한 적극적인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호적을 기준으로 조선인과 일본인의 구분을 수용했다.<sup>17</sup> 국적법이 제정되기 전 미군정의

15 「국적법」 제2호 1항, 〈1948.12.20., 제정〉

16 김수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후 국적법 제정 논의 과정에 나타난 ‘국민’ 경계 설정」,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9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09, 120쪽.

17 鄭印燮, 「우리 國籍法上 最初 國民 確定基準에 관한 검토」, 『國際法學會論叢』 제43권 2호, 대한국제법학회, 1988, 243쪽.



행정집행에서, 그리고 최초 국민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토대가 된 것은 호적제도였다. 호주제로 묶이는 부계 가족과 국적법으로 규정되는 국민이 매우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해방 직후엔 내선혼인, 창씨개명, 외국 호적 입적/국적 취득 등으로 호적에 포함되지 않는 조선인들이 많았다. 실제로 이들에 대한 국적 부여 여부는 국적법 제정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다. 언급한 임시조례 제정 당시에도 해방 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한 국적 회복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특히 일본인의 호적에 오른 경우 ‘부일협력자’라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므로 중국이나 영미 국적 취득자보다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한편, 정부수립 후 제헌국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조항은 외국인 처의 국적과 관련한 제3조 1호, 귀화와 관련한 제5조였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처가 된 자’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양의 풍속 상 가부장의 국적을 따르는 게 맞다는 의견과 단일민족의 순결성 유지나 이중국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부딪혔다. 표면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듯한 두 입장은 실은 가부장의 혈통과 계승을 국적 부여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통의 전제 위에 있다. 이 외에도 일부 의원들은 제3호 2조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한 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조항에 대하여 ‘모가 인지한 자’는 제외하자고 주장하였다. 한국 남성이 외국 여성과의 관계에서 낳은 자녀에게는 국적을 부여하지만, 한국 여성이 외국 남성과의 관계에서 낳은 자녀에 국적을 부여하는 것에는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sup>18</sup>

이와 같은 논의 끝에 1948년 제정된 국적법은 1997년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될 때까지 부계혈통주의와 속인주의를 유지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한국 전쟁과 미군의 장기 주둔을 겪으면서 새로운 타자를 마주한다. 그들은 외국 군인과 한국여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이다. 국적법은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에게 국적을 부여했고, ‘예외적인’ 경우를 고려하여 모의 국적을 따르거나 대한민국 영토에서 태어난 이에게 국적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국적 취득은 호적 입적과 연동되었고, 호적법은 부모의 법률혼 여부에 따라 구별하여 기재

---

18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와 「국적법」 제정 과정에서 논의된 쟁점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국민의 경계에 대해서는 김수자, 앞의 글, 121-141쪽 참조.

하도록 했다. 따라서 혼혈인은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국적법, 민법, 호적법에 따라 삼중의 ‘예외적인 자’, 곧 ‘외국(부계) 혈통’의 ‘모의 성과 본을 따른’ ‘혼인 외의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부계혈통주의, 부계제, 법률혼주의에 입각한 법제도는 국민을 출생에 따라 위계화하였다.<sup>19</sup> 한편, ‘삼중의 예외’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나마 모(母)의 가의 호주, 곧 외조부나 외숙부의 자(子)로 입적되어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마저도 어려웠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무적(無籍)의 비국민 상태로 있는 경우도 많았다.<sup>20</sup> 정부 또한 혼혈인에 대한 구제 정책을 마련하기보다 이들을 격리하거나 해외입양을 보내는데 힘을 쏟았다.<sup>21</sup> 더불어 혼혈인이 외국 군인과 그들을 대상으로 성매매/성판매를 하는 여성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그들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배제와 차별이 심각하게 발생했다.

그렇다면 점례와 그녀의 아들들은 국가 건립과 재건의 과정에서 가까스로 국민 범주에 편입된 경계지대의 존재들, 혹은 국민 범주 내부에서 또 다시 타자화된 마이너리티 국민이라 할 수 있겠다.<sup>22</sup> 점례는 주재소 주임 야마다의 부인이 된 조선여성으로서 임시조례 제정 당시 쟁점이 되었던 ‘일본인 호적에 입적한 자’의 부류에 가까우며, 아들 태순 또한 부계 혈통으로 따지자면 야마다를 따라 일본(인)의 호적/국적에 오르게 된다. 소설에서 점례와 태순이 정식 가족으로 야마다의 호적에 오른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적대감의 대상에서 이들 모자

19 박정미, 「혈통에서 문화로? 가족, 국적, 그리고 성원권의 젠더 정치」, 『한국사회학』 제54집 4호, 한국사회학회, 2020, 94쪽.

20 1987년 펄벅재단에 등록된 혼혈인 801명의 호적 관계는 친모 호적에 오른 이가 278명(34.7%), 무적자 130명(16.2%), 기타 129명(16.1%)로 나타난다. 한경아, 「한국 혼혈인의 실태와 문제: 펄벅 재단에 등록된 미국제 한국 혼혈인을 중심으로」,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24쪽; 위의 글, 95쪽에서 재인용.

21 김아람, 「1950~1960년대 전반 한국의 혼혈인 문제—입양과 교육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44쪽.

22 조정래의 소설은 ‘분단극복문학’(이동하)으로 평가되곤 하는데, 전쟁 중 점례의 수난은 남편 박항구의 월북에서 비롯된다. 월북한 아버지를 둔 점례의 가족은 반공 이데올로기 하에서 또 다른 층위의 마이너리티 국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소설은 혼혈인 아들로 인한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쟁 후 반공 이데올로기의 폭력을 전면에서 드러내지는 않는다.

가 제외되진 않는다. 특히 태순은 점례 부친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다가 박항구의 호적으로 옮겨오는 방식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받았다. 이는 기지촌 혼혈인이 한국국적을 얻기 위해 모의 친정에 입적되던 방식과 같다. 「황토」에서 태순은 혈통을 이유로 동익을 폄박하지만, ‘민족=국민’ 범주 바깥의 존재로서 가까스로 국민에 편입된 사정은 동일했다.

한편,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호적신고제의 혼란은 아버지가 다른 아들들이 하나의 가족/국민의 범주로 편입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점례는 “난리통에 분실된 서류”를 수습하고 “월남한 사람들을 위해 취해진 조치”(103쪽)인 ‘가호적 신고’를 통해 아들들을 박항구의 호적에 입적한다. 가호적 신고는 군정법령 제 179호 「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1948. 4. 1. 제정)에 의한 것으로, “북위 38도 이북(北朝鮮)에 본적을 두고 38도 이남(南朝鮮)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한 호적의 임시 조치”였다.<sup>23</sup> 그런데 이 제도는 당시의 혼란한 상황을 틈타 목적에서 벗어난 의도로도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4</sup> 점례 또한 이 제도를 이용하여 태순과 동익을 월북한 박항구의 아들로 입적시킨다. 세연은 본래 박항구의 자식이지만, 아버지가 다른 아들 둘은 호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임시적인 호적 신고제를 이용하여 입적시킨 것이다. 그리하여 법률상 한국인 아버지를 마련한 아들들은 ‘국민’에 편입된다.

점례의 가족사는 국민 형성 과정의 축소판인 셈인데, 점례의 자식들이 하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국민’이라는 법적 범주가 부계 혈통으로 상상되는 민족의 이질적 타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동시에 국적법은 민족과 국민을 일치시키려는 욕망이 투영된 것이었으므로, ‘민족=국민’의 등식 바깥에 있는 이들은 국민의 경계 지대에 존재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령, ‘식별되지 않는 혼혈인’ 태순은 자기 정체성을 삭제(당)하는 방식으로 국민으로 정체화할 수 있

---

23 가호적 신고제는 1962년 12월 폐지될 때까지 존속했다. 「호적법」 제142조(폐지법령) (1962. 12. 29., 일부개정)

24 위법적 가호적 신고에 대한 판례에 들자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가 가호적의 취적 신고에 이미 혼인하고 있는 부부인양 가장 신고하여 가호적에 등재한 경우(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므 19판결), 기혼 남성이 이혼소송에 패소하자 새 호적을 만들어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경우(대법원 1986.6.24 선고 86므9 판결) 등이 있다.

었고, ‘식별되는 혼혈인’ 동익은 법적 국민의 지위를 지녔으나 한국 사회에서 멸시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점례 가족사를 국민 형성 과정과 겹쳐 읽을 때 중요한 지점은 박항구의 부재를 기회로 점례 아들들이 (편)법으로 가족이 된다는 것이다. 이때 ‘부계 순혈 혈통’은 가족/국민 구성의 기본 원리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없는 존재’로서만 기능한다. 아들들은 순혈 부계 혈통을 통해서 국민의 지위를 부여받지만, 사실 순혈 아버지는 부재하다는 것, 아니 정확하게 말해 아버지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의 가족(=국민)으로 구성된다. 민족사를 여성의 수난을 통해 드러내려 했던 텍스트의 무의식은 ‘부재하는 아버지’라는 균열을 드러내고, 이 균열은 ‘민족=국민’이라는 욕망이 실체 없는 ‘순혈 아버지’를 상정한 채 국민 내부의 타자를 삭제하는/배제하는 방식으로 지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3 ‘혼혈 민족주의’의 불안과 분열

한편, 점례 가족 내부의 갈등은 순혈 이데올로기를 지탱하기 위한 민족국가의 작동방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선 가장 문제적인 인물은 장남 태순이다. 그는 사실 내선혼혈인이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다. 모친 점례가 과거를 숨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방 후 인종적으로 타자화된 ‘식별되는 혼혈인’이 부각되면서 ‘식별되지 않는’ 자기 혈통에 대한 의심이 없었던 탓이기도 할 것이다. 태순은 자신을 순혈 한국인 남성으로 정체화하면서 피를 문제 삼아 동생 동익을 학대한다.

「피는 못 속여요. 인디안을 개잡듯 한 그 야만인들의 피가 동해서 그자식이 그따위예요.」(14쪽)

이때 태순이 동익을 미워하는 데에는 혼혈인에 대한 혐오 외에 다른 이유도 있다. 언급했듯, 전쟁 이후 한국사회에서 혼혈인의 가족, 특히 어머니는 ‘양공주’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다. 태순은 중학교 때부터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남들로부터 동생 세연과 엄마,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음을 고백한다.

중학교 2학년인 태순이의 일기장에는 동익이를 동생으로 둔 자신이 남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분함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수치심으로 가득차 있었다. 그리고 어른들의 흉거리가 되는 어머니를 옹호할 수 없는 괴로움과 왜 하필이면 우리 어머니가 동익이같은 애의 어머니가 되어야 했는지 울고 있었다.(15쪽)

태순은 동익의 신체가 어머니는 물론이고 그러한 어머니를 둔 자신까지 손가락질 당하게 하는 데 분노를 느낀다. 이는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낙인과 사회적 차별로 인한 것이지만, 태순은 자기 상처를 동익과 어머니의 탓으로 돌린다. 자신이 겪는 수모와 어머니를 옹호할 수 없는 처지의 분노를 동익에 대한 폭력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점례는 동익을 향한 태순의 멸시가 사실은 어머니인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태순이 동익의 혈통을 들먹일 때, 점례는 “서른한살의 아들 앞에 발가벗고 서있는 죽음보다 차라리 독한 치욕”(15쪽)을 느낀다고 호소한다. 점례는 “태순이가 20여년 동안 동생에게 즐기치게 가해온 학대와 횡포는 당연히 어머니인 자신에 대한 멸시와 불신이라는 것”(13쪽)을 잘 알고 있다. 동익에 대한 태순의 혐오는 태순과 점례의 관계를 모자관계가 아닌 ‘민족의 남성’과 ‘양갈보’로 치환한다. 나아가 태순은 동익의 편을 드는 여동생 세연에게도 “너도 담에 그런 서방 얻어서 동익이 같은 애새길 낳게 된다”(14쪽)면서 겁박한다. 스스로를 순혈 한국인으로 정체화하고 있는 태순은 아버지가 부재한 가족의 장남으로서 혼혈인을 배제하고 동족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태순은 자신도 혼혈인이면서 동익의 혈통을 문제 삼아 가족으로부터 배제하는 매우 모순적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행위가 가능한 것은 태순의 자기 역사에 대한 ‘무지’와 ‘식별되지 않는 신체’ 때문이다. 소설에서 태순과 동익은 두 돌이 채 되지 않아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 따라서 이들은 부계 혈통에 대한 기억이 없다. 점례가 태순을 친정에서 데려왔을 때, 그녀는 태순에게 “얼버무려진 거짓말”(103쪽)로 그간의 사정을 알려줬다. 점례는 태순의 출생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태순을 떼어놓았기 때문에 그는 성인이 된 현재까지 자신의 출생에 관해 알지 못한다. 반면, 동익에게 있어서 출생에 관한 ‘알’은 부차적인 문제

이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곁으로 드러나는 외모로 인해 놀림을 받아야 했다. 여기서 혼혈의 문제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뉜다. 태순처럼 ‘식별되지 않는 혼혈인’은 자기 역사를 삭제(당)하면서 국민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었으나, ‘식별되는 혼혈인’ 동익에겐 그마저도 불가능했다. 태순이 자기 역사로부터 소외되어 살아가는 존재라면, 동익은 한국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살아가는 존재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하게 지적하고 싶은 점은 태순과 같은 존재들이 대한민국의 출발에서부터 ‘건국동이’로서 함께 했다는 것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텍스트가 엄홍섭의 「귀환일기」(1946)이다. 소설은 해방 후 조선인들의 귀환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명의 임신부가 등장한다. 순이는 ‘여자 정신대’로 탄약공장에 끌려갔다 도망쳤으나 사기꾼에게 붙들려 술집작부가 되었다. 순이는 아비도 모르는 자식을 가졌다는 데에 수치심을 느끼지만, “비록 몸은 천한 구렁속에 처박혀졌을 망정 원수 일본인에게는 절대로 몸을 허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사람의 씨를 바든것만은 몇몇이 자랑할만한 사실”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한다.<sup>25</sup> 순이는 조선으로 가는 귀환선에서 사내 아이를 낳고, 함께 귀환하는 조선사람들은 “너야말로 정말 우리 조선나라 건국동이로구나!”<sup>26</sup>라고 하며 감격스러워 한다. 한편, 사람들이 ‘건국동이’가 태어난 기쁨에 취해있는 그 순간 다른 쪽에서는 막 몸을 푼 대구여인과 내버려진 갓난아기가 있었다.

「아이유 이치운데 나와서 이게 웬 일이요! 응?」

부인네 하나가 깜작 놀라며 산모를 부축해 일으킨다. 한여인은 어느 틈에 우는 어린아이를 부둥켜 안으려한다.

「보듬지 마시소 원수놈의 씨알머리요 내가미친년이지 어찌다가 타국놈의 씨를 바덧섯는지 몰르겠구만!」

대구여인은 별반 괴로워보이는 기색도없이 언제 아이를 낳었느냐는 듯 태연스럽게 자기가 나온 어린애를 물그림이 바라보기만한다.

25 엄홍섭, 「귀환일기」, 『우리문학』 제1호, 우리문학사, 1946.1, 10쪽. 이하 작품명과 쪽수만 표기.

26 「귀환일기」, 18쪽.

「아, 이 여편네야 어쩔라구 글세 이런 바람 썬곳에 나와 아이를 낳는 단 말요.」

부인네 하나가 왈각 달려들며 어린아이를 산모의 치마로 휘모타 싸가지고 일어선다.

「내싸두소 웬수놈의 씨알머리요 우리조선이 인제 독립되게됐는데 웬수놈의 씨를 나가지고 가면 되겠능기오!」

대구여인은 이리케 자기주장을세우며 그대로 안저서 이러날 생각도 안는다.

「웬수놈의 씨알머리고 아니고간에 갓난어린게 무슨 죄가 있우! 입딱 다물고 잘키워 노면 그래두 다 우리나라 백성되지 지애비 차저 가겠수!」  
(강조-인용자)<sup>27</sup>

‘해방’이 ‘조선사람의 씨’를 받은 건국동이와 ‘타국놈의 씨’를 받은 건국동이를 동시에 낳았다는 점은 드물게나마 기존 연구에서 주목된 장면이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은 불충분하게 남겨져 있다.<sup>28</sup> 인용문에서 대구여인은 독립된 조선에 “웬수놈의 씨”를 데려갈 수 없어서 아이를 내버려 뒀다고 한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여인이 갓난아기를 감싸며 “입딱 다물고” 잘 키우면 우리나라 백성이 된다고 말한다. 대구여인의 아이는 혈통의 비밀이 유지되는 한에서 새로 건국되는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백성”이라는 말 또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27 「귀환일기」, 18-19쪽.

28 장수희는 일본군 ‘위안부’를 재현한 소설의 계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귀환일기」를 소개하고, 해방이 ‘조선사람/타국 놈의 씨’를 받은 두 부류의 건국동이를 낳고 있음에 주목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후고로 미루고 있다. 장수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문화적 재현」, 『문학들』 제48호, 심미안, 2017.5, 30쪽. 한편, 강정구·김종희는 해방기 소설에 드러나는 민족주의의 과잉을 성찰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한일혼혈인 재현 텍스트로 「귀환일기」를 다룬다. 이들은 대구 여인의 태도를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모자의 천륜이 아니라 민족의 차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구여인이 낳은 한일혼혈인에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준 주위 사람들의 태도에 주목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용적 태도가 어떤 의미인지는 해석하지 않는다. 강정구·김종희, 「해방기 소설의 민족주의 과잉 양상 고찰」, 『어문학』 제123호, 한국어문학회, 2014, 259쪽 및 각주 35.

만약 ‘백성’이 법적 개념인 국민이라면 불명확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어머니의 국적을 따르거나, 편법이거나 어머니의 친절 등 한국인 남자의 호적에 입적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반면, 부계 혈통으로 상상되는 민족이라면 그의 아버지가 일본인이므로 혈통을 비밀에 부치든 발설하든 조선 민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 아이의 혈통을 비밀에 부치는 한에서 “우리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은, 해방을 맞이한 조선인들이 기대했던 “백성”이 민족과 겹쳐지는 개념으로서의 국민, 곧 단일 민족으로 형성된 국민이라는 것이자, 다른 한편 이러한 기대가 불가능한 것임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이 불가능한 희망은 이질적 존재들의 자기역사를 ‘비밀에 부치는 한에서’ 달성될 수 있었다. 이는 ‘순혈’이라는 것이 허구임을 보여주는 것에서 나아가 이 허구를 지탱하기 위해 비-순혈인은 ‘말해질 수 없는 자’가 되어야 했음을 의미한다.

「황토」의 태순이 바로 “입딱 다물고” 잘 키워 장성한 “우리나라 백성”인 셈이다. 그는 존재하지만 ‘말해질 수 없는 자’, 혹은 비-순혈인이지만 순혈 한국인으로 ‘믿어지는’ 인물이다. 앞서 점례의 가족 형성이 부재한 순혈 아버지를 (법적) 근거로, 그러나 그 아버지가 없는 한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곧, ‘순혈 부계 혈통’은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지탱하는 믿음의 근거로, ‘민족=국민’을 일치시키려는 욕망의 구심점으로, 국적법에 기입되어 국민을 선별하는 원리로 작동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부재한다. 그런데 국민국가의 축소판인 점례의 가족에서 오직 ‘빈자리’로서 작동하는 ‘순혈 부계 혈통’을 자처하고 있는 이가 바로 ‘혼혈 장남’이다. 태순의 존재 방식은 순혈 민족주의가 작동하는 방식과 매우 흡사하다. 태순이 자기 역사를 삭제(당)하고 동의를 타자화함으로써 자신을 순혈로 믿고 있다면, 민족국가 또한 안으로는 이민족과 섞이었던 불순한 역사를 망각하고 바깥으로는 끊임없이 타자를 만들어내고 배척하면서 민족적 동일성을 유지하려 한다. 거의 발작적으로 동의를 확대하는 태순의 심리는 자신을 ‘순혈’이라 믿는, 그러나 사실은 ‘혼혈’인 민족주의의 불안과 분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때 태순이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나 동일성이 결여된 자’라는 것은 중요하다. 민족의 얼굴을 한 누구라도 ‘무지의 주체’로서 자기 안에 비-순혈의 혈통을 지니고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식별되지 않음’과 ‘알 수 없음’이 중첩된 태순의 존재는 순혈 민족이라는 범주가 기실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영



역’이 아니라 ‘비식별 영역’일 뿐임을 암시한다.

#### 4 어머니의 자기 생애사 쓰기의 가능성

「황토」의 결말 부분인 5장은 다시 현재의 시점에서 서술된다. 동익과 태순의 갈등은 소설의 마지막까지 해결되지 못한다. 태순의 인종차별 발언으로 둘은 또 다시 크게 싸우고 각자 집을 나간다. 이후 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방식은 그들의 처지를 대변한다. 먼저, 태순은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말한다. 큰오빠의 일방적인 통보에 세연이 분통을 터뜨리지만 어머니 점례는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한편, 동익의 소식은 “자활을 목적으로 뭉친 한국 혼혈아 크립”(108쪽) 회장이 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전해진다. 동익의 사진 옆에는 “인간 파편임을 자처하는 혼혈아들의 인간 선언”(108쪽)과 같은 문구가 쓰여 있다. 동익은 “나도 사람인 것을 꼭 보여주고 말겠”(16쪽)다는 각오로 에베레스트 등정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급기야 자활 클럽을 창설하여 회장이 된 것이다.

결국 형제는 화해하지 못하고 태순은 ‘결혼 선언’으로, 동익은 ‘인간 선언’으로 나아간 것이다. 두 아들의 각기 다른 선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비추어 볼 때 개연적인 결말이다. 민족의 순혈 남성으로 자신을 정체화하고 있는 태순은 이제 ‘장남’의 자리에서 ‘남편’, ‘아버지’의 자리로 옮겨가려 한다. 장남 태순은 가계의 경제적 측면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가장의 자리에 있었다. 이는 아버지가 부재한 집의 가장을 어머니가 아니라 장남으로 지정하는 호주제가 법적으로 부여한 위치였다. 그러나 태순이 아버지로서 가장이 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지닌다. 아버지는 부계 혈통의 민족을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태순의 결혼 선언은 가부장제 민족주의가 분열증을 앓는 채로 계승될 것임을 예고한다.

반면 동익의 ‘인간 선언’은 그가 “6·25의 산 비극”(108쪽), 즉 민족 국가의 역사적 산물임을 밝히고 보편적 인간으로 스스로를 정위하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보편 인간의 선언은 그가 처한 취약성의 핵심에서 빛나가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단적인 예로, 한국 정부는 1950~60년대 전반기까지 기지촌 혼혈인에 대하여 줄곧 해외 입양 정책을 최우선으로 유지했다. 정부는 혼혈인을 끊임없이 국가 바깥으로 내몰면서도 입양되는 국가로부터 인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입법조치를 강

구하려 했다.<sup>29</sup> ‘식별되는 혼혈인’에게 ‘인권’은 줄 수 있지만 ‘주권’을 줄 수는 없다는 민족국가의 기만적인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니 동익의 인간 선언 또한 그를 한국인으로 만들어주지 못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두 아들의 선언은 자신이 처한 소외로부터 벗어나는 방편이 되지 못한다. 태순은 자기 역사로부터 소외된 상태, 그 무지의 상태에서 자기 역사를 스스로 배반하는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동익의 ‘인간’ 선언은 한국 사회 내에서 ‘국민’으로서의 권리 주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두 아들의 선언에 어머니의 입장을 헤아리는 이는 딸 세연밖에 없다. 그녀는 두 아들이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어머니를 무시한 것이라 생각한다. 장남 태순의 일방적인 결혼 선언은 어머니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고, “인간 파편임을 자처하는”(108쪽) 동익의 인간 선언은 그간 그를 뒷바라지한 어머니의 노고를 무시한 것이다. 세 자식 중 유일하게 어머니 점례를 이해하려 했던 세연을 통해서 점례의 소외된 자리가 드러난다. 두 아들에게서 야속함을 느낀 점례는 어느새 손을 바라보는 나이를 새삼 깨달으며 자신의 생애를 글로 써 나가기 시작한다.

세연이 일거라

큼직한 글씨로 이렇게 썼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셨다. 무슨 말부터 써야 좋을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얼마를 망설이다가 이 글이 유서를 대신해야 된다는 것에 생각이 머물었다.

내가 남긴 재산 중에서 세연이 네가 법에 있는 장남 몫을 차지하고 태순이하고 동익이는 시집 간 큰딸 작은딸한테 가는 것만 주면 된다.

어미 김점례

이렇게 또박또박 쓰고나니 한결 마음이 후련했다.

그네는 그 다음 줄부터는 자신이 살아온 평생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쓰기로 했다. 하루에 한 줄이건 두 줄이건 써서 다 쓰도록까지 5년이 걸

---

29 김아람, 앞의 글, 23쪽.

리든 10년이 걸리든 계속 써나가리라 했다. 쓰다가 다 끝내지 못하고 죽어도 상관 없었다. 쓰는 데까지 써서 자신이 살아온 내력을 자신이 죽은 다음에 딸에게만 알리려는 것이었다. 행여 그때 통일이 되어 남편이 딸 세언이를 찾아 자신이 쓴 글을 읽게 된다면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았다.(111-112쪽)

점례는 이 글의 수신인을 딸로 지정하고, 그녀를 ‘큰아들’로 호명하고 있다. 세언의 역할을 “순수혈통”으로서 “형제간의 갈등을 풀어주는 매개체”라고 해석한 연구도 있으나,<sup>30</sup> 이는 가족 내부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의미를 무화하고 다시 ‘순혈’에 특권을 부여하는 해석이 될 수 있다. 또, 이러한 해석에는 “여자의 입장”(13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던 모녀관계의 중요성이 누락되어 있다.<sup>31</sup> 그럼에도 글쓰기 자체만을 두고 단번에 “부자관계 우위의 기존 문화에 도전”<sup>32</sup>이라고 평가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세언은 점례와 여성의 입장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일하게 ‘정상가정’에서 ‘순혈’로 태어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점례-세언’으로 이어지는 모계의 강조는 긴밀하게 연동하고 있는 정상가정 이데올로기와 순혈주의를 승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해져야 한다.

점례의 삶을 민족수난사와 등치시키려는 소설의 기획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기술할 그녀의 이야기(her-story)가 민족의 역사(history)를 배반하려 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태순이 동의를 확대하고 어머니에게 성적 낙인을 부여할 때, 점례는 마음속으로나마 순혈 민족주의의 폭력성을 태순에게 똑같이 되돌려준 바 있다. “피는 못 속인다고? 그럴지도 모른다. 그 짐승같던 야마다의 피가 끈적끈적하게 살아있기에 그다지도 몰인정한 것이 아니겠느냐.”(16쪽) 차마 발화하지 못했던 이 말은 그녀만이 알고 있는 (아버지를 대리하는) 장남의 역사였다. 소설이 끝까지 보여주지 못했지만, 점례의 생애사 서술이 진행된다면 직접적으로는 태순의 모순적 정체성이, 더 큰 차원에서는 민족국가가 외면하고 있던 불순

---

30 최강민, 앞의 글, 306쪽.

31 변화영, 앞의 글, 363쪽.

32 위의 글, 같은 쪽.

한 혈통의 역사가 폭로되고 말 것이다.

점례의 생애사 쓰기에 잠재된 전복성은 기존 서사의 곤경과 한계를 되짚어 볼 때 선명하게 드러난다. 가부장제는 여성을 억압하는 기제이자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여성으로 하여금 가부장제 내부에서 생존전략을 구사하도록 만든다. 이 생존전략은 여성에게 가치관으로서 체화된 것일 수도 있고, 제도를 전유함으로써 수행될 수도 있다. 「귀환 일기」에서 ‘여자정신대’로 끌려갔던 순이가 조선 남성에게 씨를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나, 대구여인이 아이의 혈통에 대해서 침묵해야 하는 것은 아이를 온전한 국민으로 만들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정조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작동하는 한국사회에서 여성 본인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해방 후 점례의 모친이 태순을 외할아버지 자식으로 입적하면서 점례의 과거를 숨기고, 점례 스스로 태순의 혈통을 비밀에 부쳤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공교롭게도 윤정모의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인문당, 1982)(이하 「에미 이름은」)로 약칭)에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순이가 등장한다. 이 소설의 갈등의 핵심도 순이의 아들 배문하의 혈통에 관한 것이다. 어머니인 순이는 자신의 아들이 순혈 한국인이라 주장하고, 남편 배광수는 이를 거부한다. 「귀환일기」의 순이가 “조선사람의 씨를 바든것만은 떳떳이 자랑할만한 사실”이라고 여기는 것이 기실 ‘민족 남성에 대한 정절’이라는 작가의 판타지가 강하게 투영된 것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에미 이름은」의 순이가 처한 상황은 「귀환일기」의 순이나 대구여인, 「황토」의 점례도 언제든 마주할 수 있는 곤경이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진실이든 아니든 생존전략으로서 아들의 순혈 부계 혈통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에미 이름은」은 이러한 전략이 어떻게 가부장제 민족주의 서사로 회수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텍스트의 한계는 아들 배문하가 ‘순혈 한국인’으로 ‘믿어짐으로써’ 순이가 조선 여자로 인정되는 서사 구조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 ‘조센삐’는 순혈 민족의 재생산을 담당한 ‘에미’가 됨으로써 ‘조선인’으로 편입될 수 있는 것이다. 제목에서 단번에 드러나듯, 소설은 순이의 ‘이름’은 삭제한 채 그녀의 정체성을 ‘에미’와 ‘조센삐’로 파악하려 한다. 이때 ‘고백하는 어머니-기록하는 아들’의 서사 구조가 순이의 증언을 민족의 역사로 수렴시키

는 효과적인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sup>33</sup>

반면 점례의 글쓰기는 아들을 통한 가부장제로부터의 승인이 아니라, 가부장제 민족주의가 망각하고 있는 불온한 역사를 직접 딸에게 전달하려고 한다. 점례의 글이 “여자 입장”을 공유하는 딸에게 전달하기 위해 쓰인다는 것은 ‘아들/남편’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는 여성 서사의 근경을 피해가게 한다. 무엇보다 점례의 서술이 직접 노출되는 순간 소설은 일시적이거나 그녀를 자기 생애사 해석과 기술의 주체로 만든다. 또, 점례의 생애사 쓰기는 마이너리티 국민인 두 아들의 실존적 물음에 응답할 수 있다. 점례의 생애사는 태순의 삭제된 기억을 찾아줄 수 있고, 이 기억은 식별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순혈 민족의 범주를 교란시킬 수 있다. 순혈의 허구성이 폭로될 때, 동익의 인간 선언은 한국인 선언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설은 점례의 글을 보여주지 못하고, 글쓰기를 시작하는 장면에서 끝난다. 점례는 딸 세연을 ‘장남’으로 호명했는데, 이는 가족 내 젠더 관계의 전복이긴 하지만, 동시에 가장의 권위가 남성을 지시하는 명사로만 표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연이 부계 혈통의 ‘적자’라는 점이나 모녀 관계가 아버지의 성씨를 매개하여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은 사회적 토대가 가부장제를 공고하게 떠받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과 제도뿐 아니라 언어까지 이미 남성중심적 규범을 내장하고 있을 때 여성의 자기 생애사 쓰기는 계속해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로 끌려가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소설에서 점례의 글쓰기가 ‘시작’되었을 뿐 ‘종료’될 수 없었던 것은 일차적으로 여성의 삶을 민족수난사와 등치하려 했던 민족주의적 상상력의 한계이지만, 이를 차치하고라도 여성의 생애사를 이해하고 기술할 새로운 사유 및 언어가 충분치 못한 탓이기도 하다. 점례의 글쓰기는 민족주의의 가부장제 분열증의 자기모순을 정확하게 포착한 채 도래할 언어로 남아있다.<sup>34</sup>

---

33 이지은, 「민족주의적 ‘위안부’담론의 구성과 작동 방식—윤정모 「에미이름은 조센삐였다」의 최초 판본과 개작 양상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393쪽.

34 한편, 이듬해 영화로 재탄생한 「황토」(김수용, 1975)는 좀더 적나라하게 순혈 민족주의에 대한 욕망을 드러낸다. 소설의 주된 갈등이 한국 근현대사의 부침을 온 몸으로 겪는 점례의 일생에 있었다면, 영화는 세연의 혼사장애담을 기본 골격으로 삼고 위기의 원인을 점례의

## 5 ‘무지한 혼혈’ 주체와 순혈 이데올로기의 균열

이 글은 조정래의 「황토」를 통해 가부장제 민족주의가 비-순혈적 존재를 배제하는 양상을 분석하고, 여성의 생애사 쓰기에 잠재된 힘을 확인해 보았다. 한국 근현대사는 타자와의 폭력적인 접촉을 경험하였으나, 부계 혈통으로 상상되는 민족주의는 경계 지대에서 등장한 존재들을 배제하면서 순혈 이데올로기를 지탱하였다. 그런데 비-순혈적 존재는 일제말기에는 ‘내선혼혈인’으로, 한국전쟁 이후에는 ‘전쟁혼혈인’, ‘기지촌 혼혈인’으로 시대에 따라 달리 대표/표상(represent)되었다. 본고는 해방 후 혼혈 개념이 인종화됨에 따라 한반도에서 살아 온 내선혼혈인의 존재가 삭제되었음을 지적하고, 이 또한 민족주의가 비-순혈 존재를 배제하는 방식이라 보았다. 이에 본고는 ‘식별되는/되지 않는 혼혈인’이 처한 억압적 조건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민족국가는 순혈주의를 지탱하기 위해 ‘식별되는 혼혈인’은 인종적으로 타자화하여 배제하고, ‘식별되지 않는 혼혈인’은 자기 역사를 망각하게 하여 순혈 민족으로 정체화하게 하였다. 「황토」의 장남 태순이 ‘식별되지 않는 혼혈인’으로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순혈주의를 주장하고 있다면, 동익은 ‘식별되는’ ‘인종적 표식’을 지니고 있음으로 인하여 한국사회로부터 배제된다.

이 글이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자기 역사를 삭제(당)한 채 동생을 확대하

---

과거(=태순의 출생의 비밀)로 돌린다. 세연 시부가 점례의 과거를 알아내고, ‘3·1운동에서 조부를 잃은 집안이 일본인과 피를 섞은 집과 사돈을 맺을 수 없다’면서 파혼하려 들 때, 극적으로 태순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진다. 점례는 야마다에게 가기 전 첫사랑과의 작별 인사로 정사를 나누었는데, 그때 생긴 아이가 바로 태순인 것이다. 이에 태순과 세연은 친남매가 되고, 점례의 과거는 ‘아버지를 위한 딸의 희생’이라는 미담이 되면서 혼사의 걸림돌이 해결된다. 영화의 엔딩 장면은 세연의 결혼식으로, 태순은 세연의 손을 잡고 입장해 새신랑에게 인계한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으로 부임한 프란더스 2세가 등장하여 한국전쟁 당시 아버지를 구해준 점례를 찾는다. 영화는 아들들의 혼혈인 정체성을 모두 삭제하고, 순혈 민족국가의 재생산을 예고하는 행복한 결혼식을 결말로 제시하면서 ‘아버지/남편의 대리자’(태순)와 한국전쟁에서 은혜를 주고받은 하객(미군 프란더스)을 초대한다. 혼혈인 아들들이 부계 혈통의 계승자와 이를 돕는 우방군으로 변모하는 각색은 순혈 민족주의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강렬하고 ‘대중적인’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는 태순의 행위가 민족국가의 순혈주의 재생산 메커니즘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민족국가는 이민족과 섞였던 불순한 자기 역사를 망각하고 끊임없이 타자를 만들어내고 배척하면서 ‘단일 민족 국가’라는 허구를 지탱해 왔다. 그러나 자기 역사에 대해 무지한 주체로서 ‘식별되지 않는 혼혈인’ 태순은 순혈 이데올로기를 지탱하는 동일성에 대한 믿음을 내부로부터 위협한다. 태순이라는 존재는 순혈 민족이라는 범주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영역’이 아니라 ‘비식별 영역’일 뿐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나아가 순혈 이데올로기의 폭로는 어머니 점례의 생애사 쓰기로서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설에서 점례의 글쓰기는 완성되지 못했고, 여성 생애사 쓰기의 가능성은 도래할 것으로 남아 있다. 이 글은 점례의 생애사 쓰기에 잠재된 힘을 확인함으로써 도래할 여성의 언어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였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엄홍섭, 「歸還日記」, 『우리문학』 제1호, 우리문학사, 1946.1., 2-19쪽.

윤정모,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 인문당, 1982, 7-101쪽.

조정래, 「黃土」, 『黃土』, 현대문학사, 1974, 11-112쪽.

김수용, 「黃土」, 동아흥행주식회사, 1975.

### 단행본

염운옥, 『낙인찍힌 몸』, 돌베개, 2019, 1-448쪽.

### 논문

강정구·김종희, 「해방기 소설의 민족주의 과잉 양상 고찰」, 『어문학』 제123호, 한국어문학회, 2014, 243-266쪽.

具仲書, 「주인 바뀌는 時代의 悲劇 추적」, 『韓國文學大全集』 31, 太極出版社, 1979,

605-607쪽.

권명아, 「여성 수난사 이야기, 민족국가 만들기와 여성성의 동원」, 『여성문학연구』 제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105-134쪽.

김수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국적법 제정 논의 과정에 나타난 ‘국민’ 경계 설정」,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9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09, 114-144쪽.

김아람, 「1950~1960년대 전반 한국의 혼혈인 문제—입양과 교육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73쪽.

박정미, 「혈통에서 문화로? 가족, 국적, 그리고 성원권의 젠더 정치」, 『한국사회학』 제54집 4호, 한국사회학회, 2020, 83-119쪽.

박정형, 「인종적 ‘타자’로서의 혼혈인 만들기」,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83쪽.

변화영, 「분단극복문학에 나타난 혼혈인 연구—조정래의 「황토」와 「미운 오리 새끼」를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제18집 3호,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355-377쪽.

설동훈, 「혼혈인의 사회학: 한국인의 위계적 민족성」, 『人文硏究』 제52권,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127-164쪽.

송명진, 「혼혈의 서사화 양상에 대한 사적 고찰」, 『한국언어문화학』 제7권 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71-90쪽.

李東夏, 「우람한 종합을 향한 전진」, 『黃土』, 동아, 1989, 374-379쪽.

이지은, 「민족주의적 ‘위안부’담론의 구성과 작동 방식—윤정모 <에미이름은 조센삐였다>의 최초 판본과 개작 양상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379-409쪽.

이혜령, 「인종과 젠더, 그리고 민족 동일성의 역학」, 『현대소설연구』 제1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197-218쪽.

임규찬, 「역사의 비극과 삶의 뒤틀림—중편 <비탈진 음지>·<황토>의 세계」, 『비탈진 음지』, 해냄, 1999, 313-326쪽.

장수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문화적 재현」, 『문학들』 제48호, 심미안, 2017.5, 26-43쪽.

鄭印燮, 「우리 國籍法上 最初 國民 確定基準에 관한 검토」, 『國際法學會論叢』 제43권



2호, 대한국제법학회, 1988, 235-248쪽.

千二斗, 「執念의 文學」, 『趙廷來』, 汎韓出版社, 1984, 466-473쪽.

최강민, 「단일민족의 신화와 혼혈인」, 『어문론집』 제35집, 중앙어문학회, 2006, 287-314쪽.

## Abstract

Schizophrenia of Patriarchy Nationalism and Potential of Writing Women's Life History

Lee Jieu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the patriarchy nationalism excludes beings with non-pure blood in 「Red Clay」 written by Jo Jeongrae, and to verify the subversive potential of writing conducted by women who remember the impure history of the national-state. In 「Red Clay」, Taesu, the eldest son who is 'non-visible' mixed blood, argue for pure-blood, without knowing his identity, while Dongik, the lastborn son who is 'visible' mixed blood, is excluded from the Korean society, due to his visually prominent. They differently experience alienation, depending on physically 'hidden/revealed' marks. In particular, Taesu whose own history is removed abuses his younger brother. Such an attitude is problematic, in that it is similar to the mechanism reproducing the pure-blood ideology of nation state which has endlessly excluded others, obliterating their own impure history in which they were mixed with foreign nations. Jeomrye's writing her life history in the end of 「Red Clay」 can have a subversive potential, in that it discloses the impure lineage of the patriarchy national state.

Key words: mixed blood, mixed race, pure-blood, people (nation), nation, nation-building, patriarchy nationalism, women's life history

본 논문은 2021년 3월 26일에 접수되어 2021년 3월 29일부터 4월 8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1년 4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